

#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자주 쓰는 속담 100선

made by 정예품

속담	뜻
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	내가 먼저 잘 대해 주어야 상대방도 내게 잘 대해준다.
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.	강한 사람들이 싸우는 통에 상관도 없는 약한 사람이 중간에서 피해를 봄
뽕 먹고 알 먹고	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
낮 놓고 ㄱ자도 모른다.	낮을 보고도 'ㄱ'을 알지 못할 정도로 무식하다
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.	말은 언제나 새어 나가기 마련이니 말조심하라
누워서 떡 먹기	매우 쉬운 일
도토리 키재기	별차이가 없는 사람끼리 서로 다툼. 비슷하여 견주어볼 필요 없음.
동에 번쩍 서에 번쩍	여기저기를 마구 바쁘게 돌아다니며 활동함
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.	큰 허물 가진 사람이 작은 허물 가진 사람을 흥본다.
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.	말을 잘 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음
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.	굳게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
밀 빠진 독에 물 붓기	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음
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.	작은 걸 훔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큰 도둑이 된다.
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	말은 금방 쉽게 퍼지니 말조심하라.
백지장도 맞들면 낫다.	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쉽다.
아니 땀 굴뚝에 연기나라	모든 일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.
엎드려 절 받기	억지로 요구하여 대접을 받음
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	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거나 나쁘게 대할 수 없다
젓 먹던 힘까지 다 낸다.	없는 힘까지 억지로 내야 할 만큼 몹시 힘들
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.	아무리 순한 사람이라도 너무 함부로 대하면 가만 있지 않는다.
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.	본성이 나쁜 것은 어디를 가도 그 본색을 감출 수 없다
천리 길도 한걸음부터	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차근차근해서 이룬다.

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.	모든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다.
티끌 모아 태산	작은 것이라도 자꾸 모이면 큰 것이 된다.
가는 날이 장날	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우연히 당함
누워서 침 뱉기	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더 손해가 된다.
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.	뭔가 오해를 하고 억울하게 좋지않은 일이 때 맞춰 발생하는 상황
식은 죽 먹기	너무 쉽다.
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.	잘날수록 겸손해라.
우물 안 개구리	경험이 적음에도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주변에 관심이 없다.
열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	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.
공든 탑이 무너지랴	열심히 노력했으면 실패는 없다.
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.	상대도 안되는 게 덤빈다.
가재는 게 편	비슷하거나 인연이 있는 대로 편이 된다.
그림의 떡	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음.
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	잘 아는 일이라도 신중하게 주의하자
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.	애를 쓰다가 남에게 뒤떨어져 어찌할 수가 없다
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.	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.
쥐구멍에도 햇볕 들 날이 있다.	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.
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못한다.	어릴 때의 일은 생각 못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
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.	한 가지 일을 보고도 전체를 앎
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.	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성공한다.
바늘 가는 데 실 간다.	둘이 떨어지지 않고 꼭 같이 다닌다.
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.	같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.
하늘의 별 따기	해내기가 매우 어렵다.
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.	기본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다.
병 주고 약 준다.	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구원한다.
빈 수레가 요란하다.	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떠든다.
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.	어떤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없어도 오래 있으면 얼마간의 지식과 경험을 갖는다.
불난 집에 부채질한다.	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한다.

칼로 물 बे기	서로 다투었지만 금방 사이가 좋아진다.
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.	조금 줬는데 그 대가가 몇 배다.
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.	적은 비는 조금씩 젖어서 젖은 줄 모른다. 작은 일도 계속되면 큰 일이 된다.
개밥에 도토리	개는 도토리 안 먹으니까 남긴다. 여러 명 속에서 따돌림 받음.
금강산도 식후경	아무리 재밌는 일 있어도 밥부터 먹자.
계란으로 바위치기	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.
꿩 대신 닭	필요한 게 없을 때 비슷한 것을 쓴다.
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.	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다.
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	관점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본다.
갈수록 태산	일이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.
개천에서 용 난다.	가난하고 힘없는 동네에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.
가뭄에 콩 나듯 한다.	어떤 일이나 물건이 어쩌다 하나씩 있다.
고생 끝에 낙이 온다.	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라!
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.	자식을 많이 둔 부모님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.
간에 기별도 안 간다.	소화기관인 간에 음식이 안 갔다. 배고프다.
간이 콩알만 해지다.	간이 오그라든다. 무섭다.
같은 값이면 다홍치마	같은 가격이면 더 예쁜 치마 값이 같거나 노력이 같으면 품질이 좋은 것을 고른다.
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.	평소에 흔한 것도 필요할 땐 없다.
꼬리가 길면 밟힌다.	나쁜 일을 아무리 몰래 해도 계속하면 결국 들킨다.
내 코가 석 자	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.
마른 하늘에 날벼락	뜻밖에 입은 고통
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.	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명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안된다.
방귀 똥 놈이 성낸다.	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낸다.
수박 겉 핥기	제대로 안 보고 대충한다.
다 된 밥에 재 뿌리기	공들여 진행한 일을 한순간에 망친다.
말이 씨가 된다.	말하던 것이 사실대로 되었다.
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.	한 사람의 악행이 그 집단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.

시작이 반이다.	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은 쉽다.
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.	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진다.
좋은 약은 입에 쓰다.	충고는 듣기 싫지만, 사실은 유익한 것이다.
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.	제일 못생긴 건 꼴뚜기다. 못난 사람이 동료들까지 망신시킨다.
아 해 다르고, 어 해 다르다.	같은 말이라도 표현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. - 그럴 거면 관둬! / 다음부터 그러지마~
울며 겨자 먹기	싫은 일을 억지로, 마지못해 한다.
찬물도 위아래가 있다.	무엇이든 순서가 있으니, 그 차례를 따라야 한다.
피는 물보다 진하다.	핏줄, 가족 간의 깊은 정
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.	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는다.
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.	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함.
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.	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.
등잔 밑이 어둡다.	가까이 있는 것,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을 오히려 모른다. / 물건을 바로 앞에 두고 찾지 못해
눈 가리고 아웅	실제로 보람이 없는 걸 형식적으로 한다. 부질없다.
무소식이 희소식	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, 잘살고 있을 거다.
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.	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손해만 생긴다.
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.	떠들썩한 잔치,소문에 비해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일치하지 않는다.
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	자기 능력 밖의 일은 욕심을 내지 마라
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.	원수진 사람들이 서로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난다.
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.	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한다
작은 고추가 맵다.	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더 잘한다.
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.	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죽는다.
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.	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, 해결할 수 있다
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.	잘하는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한다.